

발 간 등 록 번 호
2026-KIHF-033

가족관계교육 활성화 포럼 자료집

2026. 5. 26.(화) 15:00~17:00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가족관계교육 활성화 포럼 개요

○ 포럼명: 가족관계교육 활성화 포럼

○ 목 적: 가족관계교육(부모교육)의 중요성 환기 및 인식 확대를 위한 공론화의 장 마련

○ 일 시: 2026. 5. 26.(화) 15:00 ~ 17:00

○ 장 소: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 주 최: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프로그램 순서

시 간	내 용	
15:00-15:10(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 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관리부 이현주 부장
	개회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박구연 이사장
	축 사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
15:10-15:30(20')	주제발표 1	가족관계교육 활성화를 위한 가족교육 현황 및 인식조사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사업지원부 오청미 부장
15:30-15:50(20')	주제발표 2	가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현황 및 추진 방향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이재림 교수
15:50-16:00(10')	휴식	
16:00-16:50(50')	종합토론	좌 장: 남영주 교수(광주대학교/한국가족관계학회) 토론자: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전략과 이가람 과장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본부 김윤아 본부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권선화 센터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사업본부 안재희 본부장 서울시가족센터 홍우정 센터장
16:50	폐회	

목 차

01 주제발표

- 가족관계교육 활성화를 위한 가족교육 현황 및 인식조사 ----- 1p
오청미 부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사업지원부)
- 가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현황 및 추진 방향 ----- 21p
이재림 교수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02 토론문

좌장: 남영주 교수(광주대학교/한국가족관계학회)

- 가족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정책과 현장의 균형 ----- 35p
이가람 과장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전략과)
- 가족교육 활성화 방안: 범부처 협력 기반 통합체계 구축·운영----- 38p
김윤아 본부장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본부)
- 가족관계교육은 '부모가 된 이후'가 아니라 '관계를 배우는 전 과정'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 41p
권선화 센터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 가족관계교육 확산의 필요성과 실천 과제 ----- 46p
안재희 본부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사업본부)
- 서울가족학교 사업 성과와 발전 방향 ----- 50p
홍우정 센터장
(서울시가족센터)

가족관계교육 활성화를 위한 가족교육 현황 및 인식조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사업지원부 오청미 부장

01 조사개요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모바일 조사
	조사대상자	20 ~ 60대 성인남녀
	표본 수	총 1,000명
	조사기간	2026.04.17. ~ 2026.04.23.
	신뢰수준	95%

02 조사 목적



01

대국민 가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경험 조사를 통한 가족교육 현황 파악



02

효과적인 가족교육 운영체계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



03

가족교육 참여동기 및 저해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도출 지원

3

02 조사 내용

1 가족교육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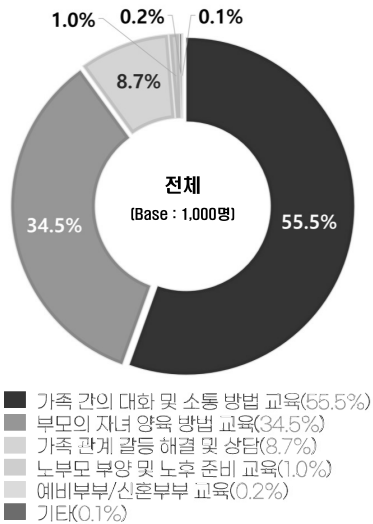
2 가족교육 참여 동기, 미 참여 사유 및 향후 참여 의사

3 자녀 양육 부담 및 부모교육 요구도

4 가족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요구

4

1 '가족교육'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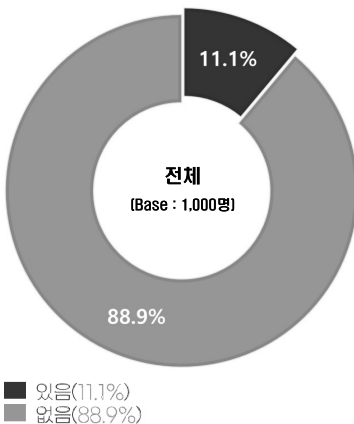


- 전체 응답률 중 가족간의 대화 및 소통 방법 교육(55.5%)이 가장 높았으며, 부모의 자녀 양육 방법 교육(34.5%), 가족 관계 갈등 해결 및 상담(8.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 '가족 간 대화 소통 방법 교육'에 대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 경향이 나타남
20대 44.8% → 30대 46.7% → 40대 58.7% → 50대 58.2% → 60대 이상 64.5%
- (자녀 유무) 자녀가 있는 경우(61.9%) '가족 간 대화 소통 방법 교육'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남

5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 가족교육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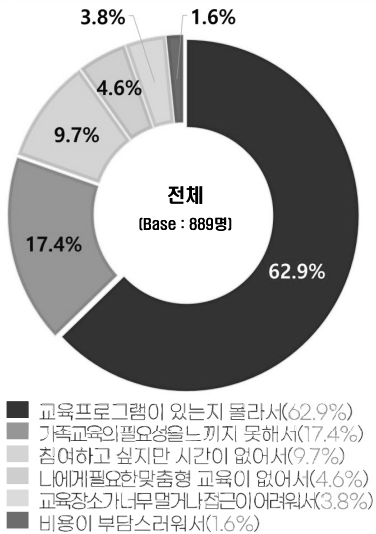


- 가족교육에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1.1%, 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88.9%로 나타남
- (자녀 유무) 자녀가 있는 경우 14.9%가 가족교육 참여 경험이 있었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 가족교육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5%로 나타남

6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3 가족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 그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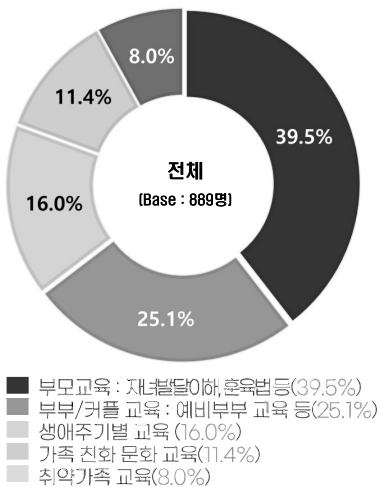


- 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이유로
 -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62.9%)
 - 가족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7.4%)
 - 시간이 없어서(9.7%)로 나타남
- (자녀 유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항목에 대해
 - 자녀가 없는 경우(23.1%)가 자녀가 있는 경우(12.4%)보다 높게 나타남
- (혼인 여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항목에 대해
 - 미혼(23.4%)이 기혼(13.3%)보다 높게 나타남

7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4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 어떤 교육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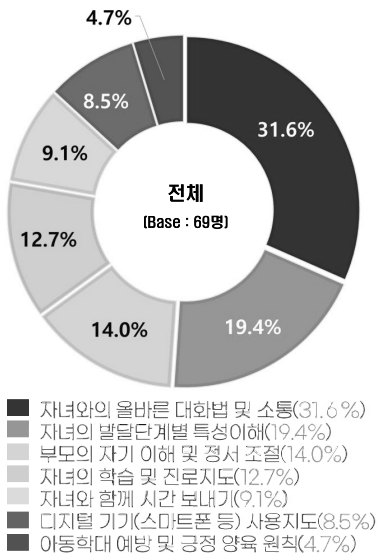


- 교육을 참여해 본 응답자들은
 - 부모교육(자녀 발달 이해, 의사소통 등) 39.5%
 - 부부 및 커플 교육 25.1%
 - 생애주기별 교육 16.0%
 - 가족친화 문화 교육 11.4%
 - 취약가족 교육 8.0%에 참여해 본 것으로 나타남
- (자녀 유무) 자녀가 있는 경우 72.0%가 부모교육에 참여해 본 것으로 나타남

8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5 부모교육 참여 경험에 있는 경우, 어떤 주제의 교육을 받아보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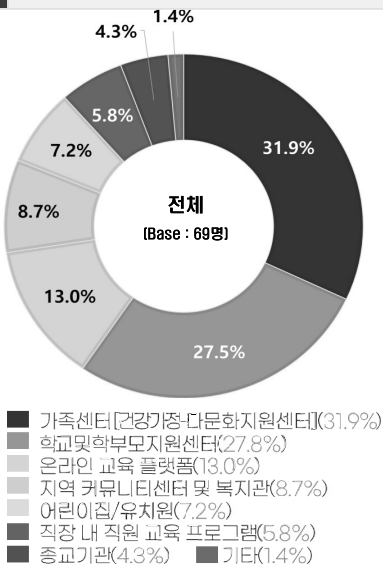


- 부모교육을 참여해 본 응답자들은
 - 자녀와의 대화법 및 소통 교육 (31.6%)
 - 자녀 발달 단계별 특성 이해 (19.4%)
 - 부모 자기 이해 및 정서 조절 (14.0%)
 - 자녀 학습 및 진로 지도 (12.7%) 순으로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 ‘자녀와의 소통 기술’ 교육은 여성은 87.9%, 남성은 63.9%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자녀 발달 단계 이해’ 교육은 남성이 52.8%, 여성이 39.4% 참여 한 것으로 나타남

9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6 가족교육 참여 경로



- 가족교육에 참여해 본 응답자들은
 - 가족센터 (31.9%), 학교 및 학부모지원센터(27.5%), 온라인 교육 플랫폼(13.0%), 지역 커뮤니티 센터 및 복지관(8.7%) 순으로 참여 경로가 나타남
- (자녀유무)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센터(30.5%)와 학교 및 학부모지원센터(27.1%)를 통한 참여, 자녀가 없는 경우 가족센터(40.0%)와 종교기관(20.0%)을 통한 참여가 높게 나타남
- (혼인여부) 가족센터를 통한 참여 경험자가 미혼(42.9%), 기혼(29.5%)로 나타남

10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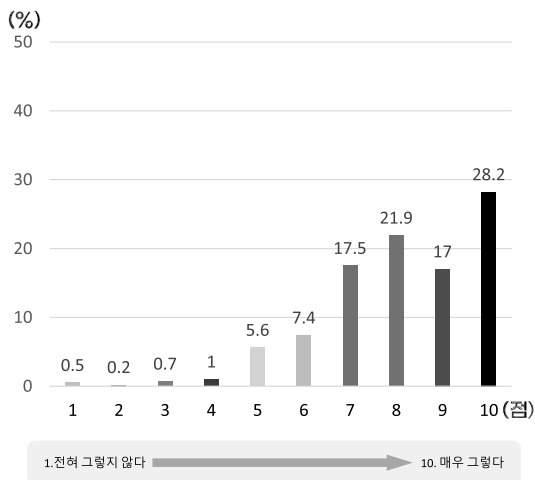
가족 및 가족교육 관련 인식 조사

문항	0	2	4	6	8	10
내가 자녀였을 때 가족경험은 현재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8.12
행복한 가정생활은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8.58
가족을 구성하고 그 관계를 행복하게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8.69
국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8.28
가족 간 갈등이나 소통문제는 전문적인 교육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7.55
가족교육은 모든 가족에게 필요하다						8.19
학교를 통해 가족가치, 생명존중, 가족구성원 역할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8.29
좋은 부모가 되는 데 필요한 자질은 타고난 환경보다, 교육과 경험을 통해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다						7.95
부모교육은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넘어, 부모 자신과 자아존중감과 행복에도 도움이 된다						8.5
국가는 모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전이나 양육 중 일정 시간 이상 부모교육을 받도록 권해야 한다						7.98

1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7-1 (인식) 내가 자녀였을 때 가족경험은 현재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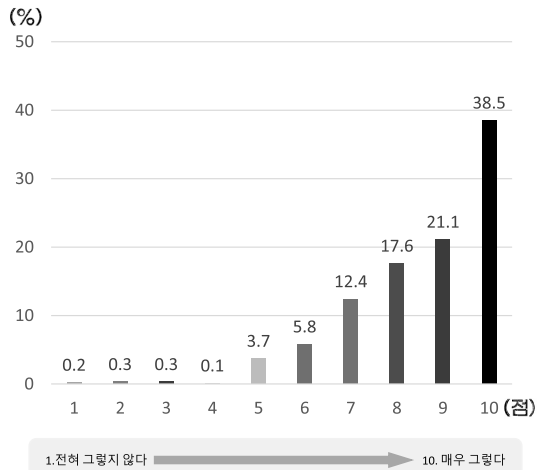


- 응답자 전체 평균은 8.12점으로 나타남
- (연령) 30대는 평균 8.2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는 평균 7.9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혼인 유무) 기혼이 평균 8.24점, 미혼이 평균 7.95점으로 나타남

1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7-2 (인식) 행복한 가정생활은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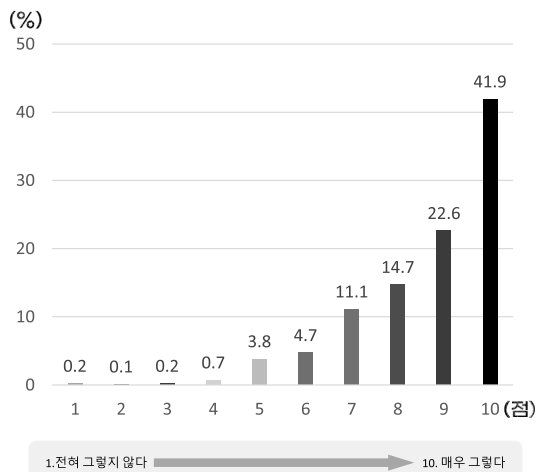


- 응답자 전체 평균은 8.58점으로 나타남
- (성별) 여성 응답은 평균 8.83점, 남성 응답은 평균 8.34점으로 나타남
- (혼인 유무) 기혼이 평균 8.85점, 미혼이 평균 8.14점으로 나타남

1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7-3 (인식) 가족을 구성하고 그 관계를 행복하게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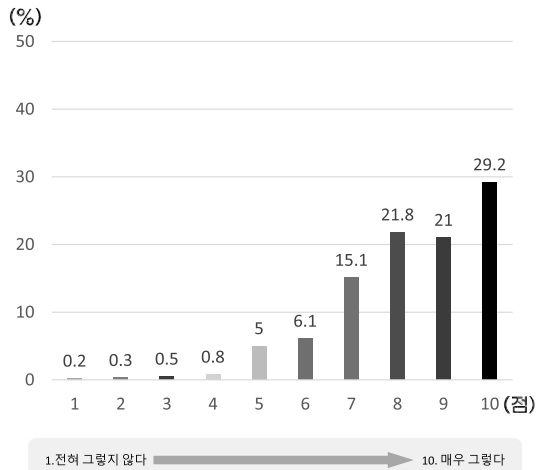


- 응답자 전체 평균은 8.69점으로 나타났으며, 10점 응답이 41.9%로 나타남
- (연령) 20대 8.28점, 30대 8.45점, 40대 8.70점, 50대 8.90점, 60대 이상 8.94점으로 연령이 높아질 수록 동의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 (혼인 유무) 기혼이 평균 8.97점, 미혼이 평균 8.23점으로 나타남

1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7-4 (인식) 국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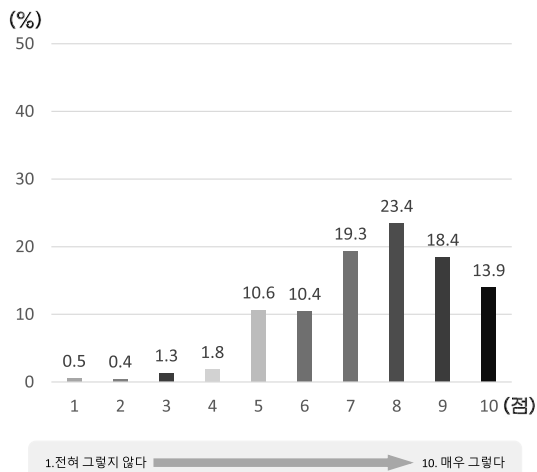


- 응답자 전체 평균은 8.28점으로 나타남
- (성별) 여성 응답은 평균 8.48점, 남성 응답은 평균 8.09점으로 나타남
- (자녀 유무) 자녀가 있는 경우 평균 8.49점, 자녀가 없는 경우 평균 8.03점으로 나타남
- (혼인유무) 기혼인 경우 평균 8.48점, 미혼인 경우 평균 7.98점으로 나타남

15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7-5 (인식) 가족 간 갈등이나 소통문제는 전문적인 교육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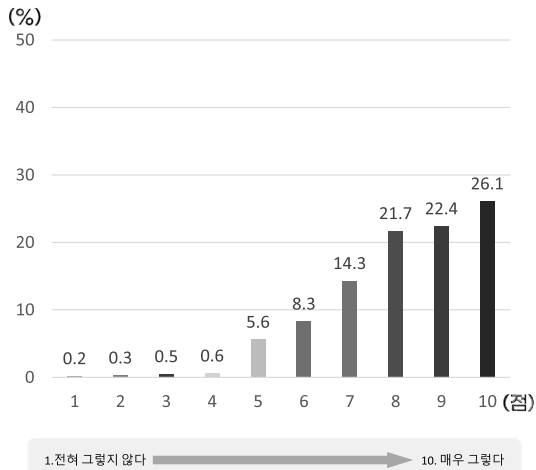


- 응답자 전체 평균은 7.55점으로 나타남
- (자녀유무) 자녀가 있는 경우 평균 7.89점, 자녀가 없는 경우 평균 7.12점으로 나타남. 자녀가 있는 경우 9점 응답 비율이 24.9%로 나타남
- (혼인 유무) 기혼이 평균 7.85점으로 나타났으며 8점~10점을 응답한 비율이 63.2%로 나타남

16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7-6 (인식) 가족교육은 모든 가족에게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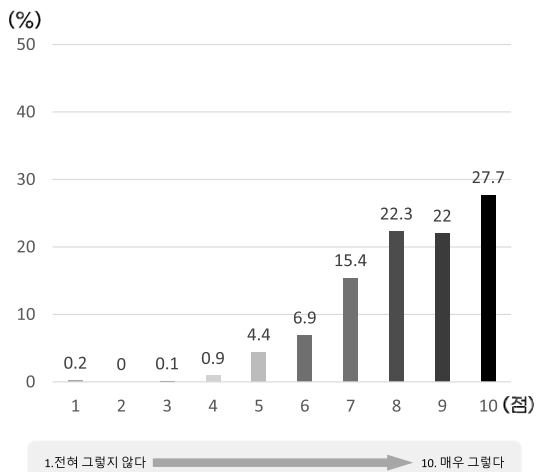


- 응답자 전체 평균은 8.19점으로 나타났으며, 약 70% 응답자가 8점 이상을 응답함
- (성별) 여성 응답은 평균 8.39점, 남성 응답은 평균 7.99점으로 나타남
- (자녀유무) 자녀가 있는 경우 평균 8.44점, 자녀가 없는 경우 평균 7.87점으로 나타남
- (혼인유무) 기혼은 평균 8.44점, 미혼은 평균 7.77점으로 나타남

17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7-7 (인식) 학교를 통해 가족가치, 생명존중, 가족구성원역할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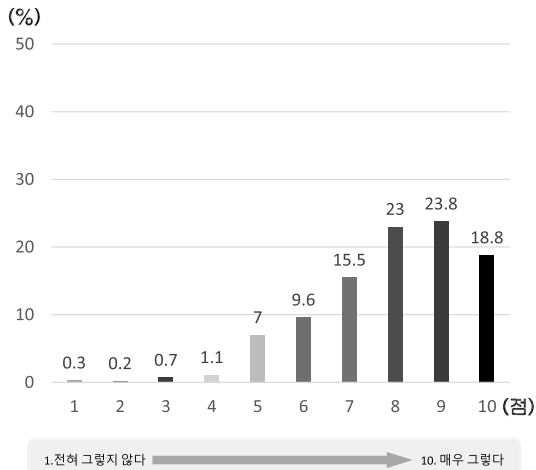
- 응답자 전체 평균은 7.95점으로 나타났으며, 약 70% 응답자가 8점 이상을 응답함
- (자녀유무) 자녀가 있는 경우 평균 8.20점, 자녀가 없는 경우 평균 7.63점으로 나타남
- (혼인유무) 기혼은 평균 8.21점, 미혼은 평균 7.52점으로 나타남

18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7-8

(인식) 좋은 부모가 되는 데 필요한 자질은 타고난 환경보다, 교육과 경험을 통해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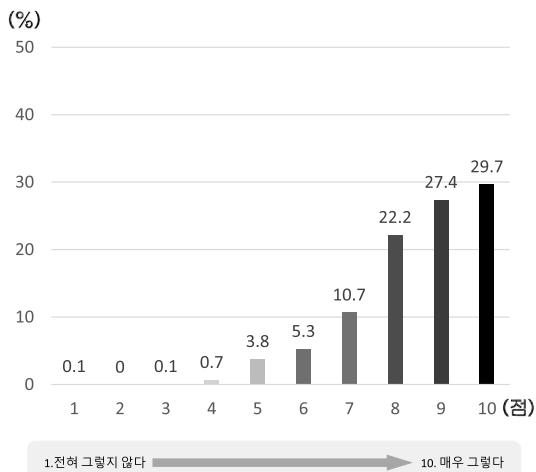
- 응답자 전체 평균은 7.95점으로 나타났으며, 약 70% 응답자가 8점 이상을 응답함
- (자녀유무) 자녀가 있는 경우 평균 8.20점, 자녀가 없는 경우 평균 7.63점으로 나타남
- (혼인유무) 기혼은 평균 8.21점, 미혼은 평균 7.52점으로 나타남

19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7-9

(인식) 부모교육은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넘어, 부모 자신과 자아 존중감과 행복에도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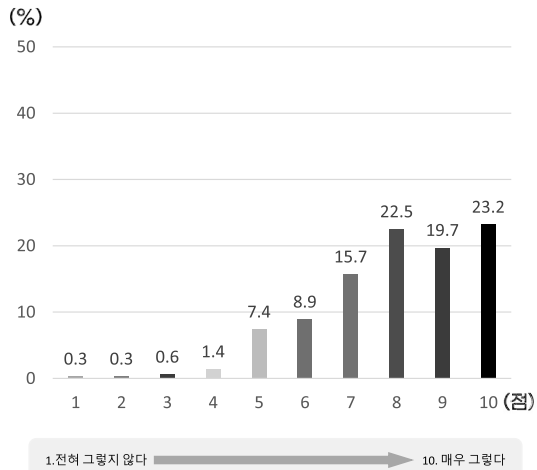
- 응답자 전체 평균은 8.50점으로 나타났으며, 약 80% 응답자가 8점 이상을 응답함
- (성별) 여성은 평균 8.84점, 남성은 평균 8.17점으로 나타남
- (자녀유무) 자녀가 있는 경우 평균 8.67점, 자녀가 없는 경우 평균 8.29점으로 나타남
- (혼인유무) 기혼은 평균 8.67점, 미혼은 평균 8.23점으로 나타남

20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7-10

(인식) 국가는 모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전이나 양육 중에 일정 시간 이상의 부모교육을 받도록 권장해야 한다.



- 응답자 전체 평균은 7.98점으로 나타남
- (성별) 여성은 평균 8.26점, 남성은 평균 7.71점으로 나타남
- (혼인유무) 기혼은 평균 8.10점, 미혼은 평균 7.77점으로 나타남

2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8

자녀 양육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목	1순위(%)
(Base)	(1,000)
경제적 부담	56.6
시간 부족 / 일-가정 양립	18.3
자녀의 정서 및 행동 문제	9.8
양육 정보 및 노하우 부족	6.7
부모 자신의 삶과 자유 제한	2.4
자녀의 학습 및 진로 결정	2.2
신체적 피로 및 건강 저하	2.2
돌봄 공백 및 인프라 부족	1.8

22

항목	1~3순위 누적(%)
(Base)	(1,000)
경제적 부담	77.2
시간 부족/일-가정 양립	57.7
자녀의 정서 및 행동 문제	38.3
양육 정보 및 노하우 부족	28.8
▲ 돌봄 공백 및 인프라 부족	21.0
부모 자신의 삶과 자유 제한	19.0
자녀의 학습 및 진로 결정	18.5
신체적 피로 및 건강 저하	15.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8 자녀 양육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령별

전 연령대 '경제적 부담' ↑
- 50대 59.9%

'시간 부족/일-가정 양립'
- 30대 28.3%

자녀 유무별

자녀 정서 및 행동문제
- 자녀 유 11.8%
- 자녀 무 7.3%

시간 부족/일-가정 양립
- 자녀 무 20%

혼인 여부별

경제적 부담
- 기혼 55.4%
- 미혼 57.9%

자녀 정서 및 행동문제
- 기혼 11.9%
- 미혼 6.7%

2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9 가족교육 강화시 가장 먼저 강화해야 할 교육 분야

항목	1순위(%)
(Base)	(1,000)
가족 관계 및 소통 교육	35.6
부모 역량 강화 교육	23.9
가족형성 및 준비 교육	21.4
가족생활 지원 교육	7.0
가족 돌봄 및 부양 지원 교육	5.4
폭력 및 학대 예방 교육	4.2
다양한 가족 맞춤형 교육	2.5

24

항목	1~3순위 누적(%)
(Base)	(1,000)
가족 관계 및 소통 교육	76.1
부모 역량 강화 교육	69.3
가족형성 및 준비 교육	54.3
▲ 가족 돌봄 및 부양 지원 교육	20.0
가족생활 지원 교육	17.6
폭력 및 학대 예방 교육	14.8
다양한 가족 맞춤형 교육	14.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9 가족교육 강화 시 가장 먼저 강화해야 할 교육 분야

연령별

20대 제외한 전 연령대
'가족 관계 및 소통 교육'↑
- 20대 26.6%(가장 낮음)
- 60대 41.9%(가장 높음)

20대는
'부모 역량 강화 교육'↑
- 20대 27.3%

자녀 유무별

가족 관계 및 소통 교육
- 자녀 유 39.9%
- 자녀 무 30.3%

부모 역량 강화 교육
- 자녀 유 23.2%
- 자녀 무 24.7%

가족생활지원교육
- 자녀 유 5.1%
- 자녀 무 9.4%

혼인 여부별

가족 관계 및 소통 교육
- 기혼 38.6%
- 미혼 30.6%

부모 역량 강화 교육
- 기혼 23.5%
- 미혼 24.9%

가족형성 및 준비교육
- 기혼 23.2%
- 미혼 17.7%

25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10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면 어떤 교육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항목	1순위(%)
(Base)	(1,000)
가족 관계 및 소통 교육	43.4
부모 역량 강화 교육	23.8
가족형성 및 준비 교육	11.5
가족 돌봄 및 부양 지원 교육	8.7
가족생활 지원 교육	8.6
다양한 가족 맞춤형 교육	2.8
폭력 및 학대 예방 교육	1.2

26

항목	1~3순위 누적(%)
(Base)	(1,000)
가족 관계 및 소통 교육	74.4
부모 역량 강화 교육	56.7
가족형성 및 준비 교육	35.3
가족 돌봄 및 부양 지원 교육	30.3
가족생활 지원 교육	23.7
다양한 가족 맞춤형 교육	12.0
폭력 및 학대 예방 교육	5.6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10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면 어떤 교육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연령별

전 연령대 '가족 관계 및
가족소통 교육'↑
- 50대 51.5%

전연령대 '가족형성 및
준비교육'은 점차 감소
- 20대 20.8%
- 60대 7.4%

자녀 유무별

가족 관계 및 소통 교육
- 자녀 유 48.8%
- 자녀 무 36.7%

부모 역량 강화 교육
- 자녀 유 27.0%
- 자녀 무 19.8%

가족형성 및 준비교육
- 자녀 유 8.0%
- 자녀 무 15.8%

혼인 여부별

가족 관계 및 소통 교육
- 기혼 47.3%
- 미혼 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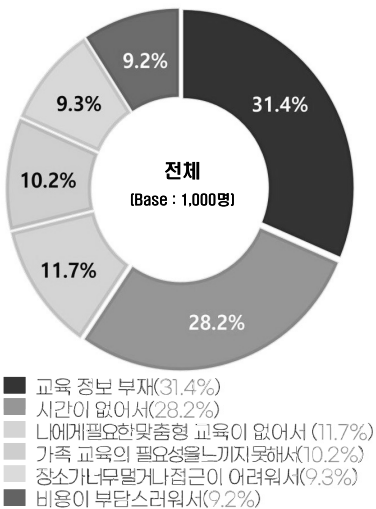
부모 역량 강화 교육
- 기혼 27.5%
- 미혼 18.0%

폭력 및 학대교육
- 기혼 0.3%
- 미혼 2.7%

27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11 이후 교육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후 교육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는
 - 교육 정보 부재 (31.4%),
 - 시간이 없어서(28.2%),
 - 나에게 필요한 교육 부족(11.7%),
 - 낮은 교육 필요 요구도(10.2%) 순으로 응답함
- (연령) 30대(39.1%)와 40대(39.9%)는
'시간이 없어서' 응답이 많았으며,
60대는 교육 정보 부재(45.6%) 응답이
높게 나타남

28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12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모교육의 분야는 무엇입니까?

항목	1순위(%)	항목	1~3순위 누적(%)
(Base)	(1,000)	(Base)	(1,000)
자녀와의 대화법 및 소통기술	51.7	자녀와의 대화법 및 소통기술	81.6
부모 자기 이해 및 정서 조절	20.5	부모 자기 이해 및 정서 조절	53.2
자녀 발달 단계 이해	11.8	자녀 발달 단계 이해	43.6
자녀학습 및 진로지도	5.8	▲ 자녀와 함께 시간 보내기	24.6
자녀와 함께 시간 보내기	4.8	자녀의 학습 및 진로 지도	22.8
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	2.7	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	12.9
아동학대 예방 및 양육 원칙	2.7	아동학대 예방 및 긍정 양육 원칙	12.7

29



12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모교육의 분야는 무엇입니까?

연령별

전 연령대 '자녀와의 대화법
및 소통 기술'↑
- 60대 63.6%

부모 자기이해 및 정서조절
- 30대 15.4%

자녀 유무별

자녀와의 대화법 및 소통기술
- 자녀 유 59.3%
- 자녀 무 42.3%

부모 자기이해 및 정서조절
- 자녀 유 15.8%
- 자녀 무 26.3%

아동학대 및 긍정양육원칙
- 자녀 유 1.3%
- 자녀 무 4.5%

혼인 여부별

자녀와의 대화법 및 소통기술
- 기혼 57.5%
- 미혼 41.8%

부모 자기이해 및 정서조절
- 기혼 16.9%
- 미혼 26.5%

아동학대 및 긍정양육원칙
- 기혼 1.2%
- 미혼 5.1%

30



13 부모교육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3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13 부모교육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연령별

전 연령대 '공공기관' ↑
- 60대 77%

초/중/고등학교 ↓
- 20대 14.9%
- 60대 6.5%

자녀 유무별

공공기관
- 자녀 유 77.4%
- 자녀 무 74.5%

초, 중, 고등학교
- 자녀 유 10.5%
- 자녀 무 13.4%

혼인 여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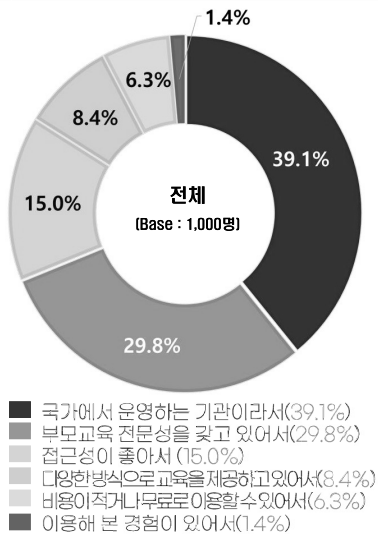
공공기관
- 기혼 74.9%
- 미혼 77.3%

초, 중, 고등학교
- 기혼 10.6%
- 미혼 14.2%

3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13-1 선택한 기관이 적합하다고 생각한 사유



- 선택한 기관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서(39.1%),
 - 부모교육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29.8%),
 - 접근성이 좋아서(15.0%)
- (연령) 20대(43.5%)와 30대(50.0%)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서' 응답이 많았으며, 60대(38.7%)는 '부모교육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응답이 높게 나타남

3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14 부모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정책

항목	1순위(%)	항목	1~3순위 누적(%)
(Base)	(1,000)	(Base)	(1,000)
교육비 무료 제공, 교재/교구 지원	27.8	▲ 교육참여 시간 유급 휴가 또는 유연근무	52.9
교육참여 시간 유급 휴가 또는 유연근무	24.4	교육비 무료 제공 및 교재/교구 지원	44.1
부모교육 이수 일정 수준 준의무화	12.0	▲ 가족 체험/문화 프로그램 연계	33.6
아동수당 가산 지급 또는 마일리지 제공	9.2	부모교육 이수 일정 수준 준의무화	32.9
가족 체험/문화 프로그램 연계	6.6	아동수당 가산 지급 또는 마일리지 제공	30.3
전문가 1:1 상담권 제공	6.3	▲ 자녀 일시 돌봄 서비스	28.1
특정 정부 혜택(바우처 등) 가점 부여	4.5	전문가 1:1 상담권 제공	26.3
거주지 및 직장 '찾아가는 교육'	4.2	거주지 및 직장 '찾아가는 교육'	22.6
자녀 일시 돌봄 서비스	4.0	특정 정부 혜택(바우처 등) 가점 부여	21.4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1.0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7.8

3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14 부모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정책

연령별

교육비 무료 제공 및
교재/교구 지원
- 20대 (31.2%)
- 50대 (29.5%)
- 60대(29.0%)

교육참여 시간 유급 또는
유연근무
- 30대 (28.8%)
- 40대(27.4%)

자녀 유무별

교육참여 시간 유급 또는
유연근무
- 자녀 유 23.0%
- 자녀 무 26.1%

가족체험 / 문화프로그램연계
- 자녀 유 8.7%
- 자녀 무 4.0%

혼인 여부별

교육비 무료 제공 및
교재/교구 지원
- 기혼 29.9%
- 미혼 24.7%

교육참여 시간 유급 또는
유연근무
- 기혼 22.9%
- 미혼 27.1%

35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가족교육의
“필요성 인식”을
“실제 참여”
연결 정책 전환

- 가족교육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국민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실제 참여 경험은 11.1% 수준에 불과
- 단순 프로그램 확대보다 “접근 가능한 참여 구조” 마련 필요

“교육 공급 중심”
▽
“참여 촉진 중심”

국민 생활 여건
고려한
참여지원 체계
강화 필요

- 미참여 이유로 “교육 정보 부족(62.9%)”과 “시간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참여 활성화 정책으로
- 유급휴가·유연근무 보장
- 무료 교육 지원
- 돌봄서비스 연계 요구 높게 나타남

일·가정 양립 및
생활밀착형
참여지원
정책 연계 필요

36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부모교육 중심에서
가족관계·
소통 중심
교육 확장 필요**

- 국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인식한 영역 “가족관계 및 소통교육”
- 부모역량뿐 아니라 가족 내 의사소통, 관계형성, 정서지원 요구 확인

**생애주기별
관계교육 및
가족소통교육
강화 필요**

**범부처·지역사회
연계 기반
통합 가족교육
운영 필요**

- 가족센터, 학부모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학교 등 다양한 기관에 대한 정책 수요 함께 확인
- 가족교육은 특정 기관 단독 수행보다 생애주기 및 대상 특성에 따라 기관 간 역할 연계 중요

**범부처 협력 기반
통합 가족교육
전달체계 및
지역사회 기관 간
연계 강화 필요**

37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감사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가족교육(부모교육) 활성화 포럼 주제발표 2

가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현황 및 추진 방향

2026. 5. 26.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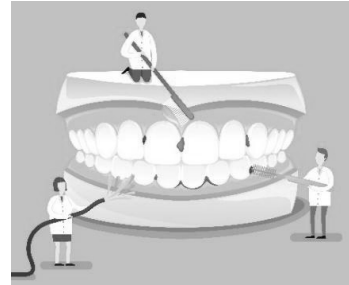
이 재 림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 주요 질문

- 가족교육의 핵심은 무엇인가?
-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 국내 가족교육의 특징은 무엇인가?
- 정부 주도 가족교육, 제대로 하려면?

| 예방이 왜 중요한가?



| 백신·스케일링과 비교

■ 유사점

- 고통을 가져오는 문제 '예방'
- 건강과 삶의 질에 필요
- 꾸준히 받으면 도움
- 필수 아닌 선택
- 연구 기반
- 전문인력이 실시
- 국가 지원

■ 가족교육의 차이점

- 교육적 접근
- 가족생활 문제 예방
- (예방하려는) 문제가 덜 가시적
- 효과 검증 등 기반 연구 부족
- 적은 투자



| 가족교육의 정의

“교육적(educational), 예방적(preventive), 강점기반(strengths-based) 접근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지식과 기술을 발달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대인관계를 강화하는 전문적 실천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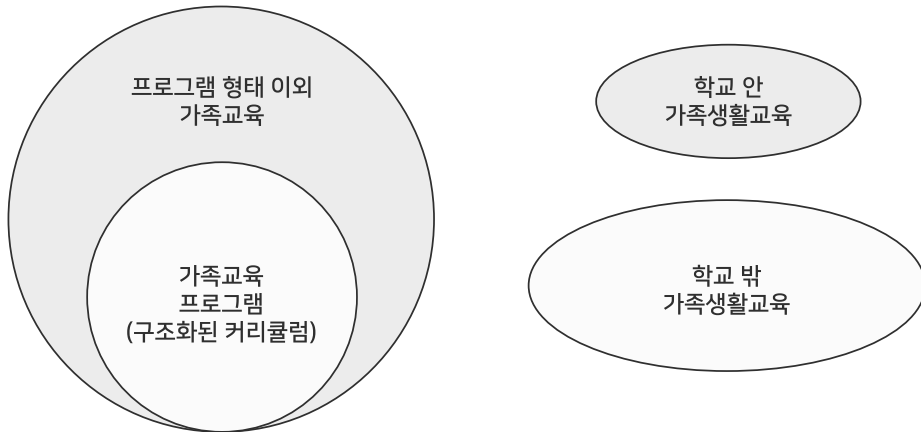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n.d.)

| 가족교육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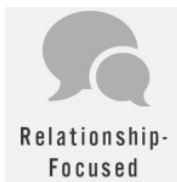
- 다양한 생애주기의 가족구성원에게 가족이 건강하게 기능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여 개인과 가족의 긍정적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가족이 최적의 상태로 기능하도록 지원함
- 건강한 가족 기능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
 -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 인간발달에 대한 이해
 -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술 및 자아존중감
 - 건강한 대인관계 기술 및 지식

<https://www.ncfr.org/cfle-certification/what-family-life-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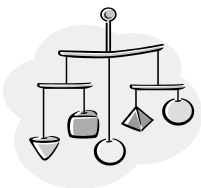
| 다양한 가족교육



| 가족교육의 성격: 관계



- “건강한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건강한 관계를 형성·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 부모·자녀, 부부·연인 등 친밀한 관계와 상호작용에 초점



- 체계로서의 가족 (family as a system)
 -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 가족구성원 간 상호작용 및 상호의존성

| 가족교육의 성격: 강점 + 교육



- “개인과 가족의 강점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 결점(deficits), 약점 대신
 - 강점, 역량, 잠재력, 회복탄력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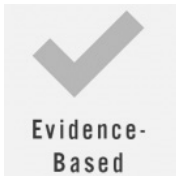


- 실생활에 관련된 교육
- 효과적 교수법
- ‘성장’으로 이어져야

| 가족상담과 비교

	가족교육	가족상담
왜?	• 지식과 기술의 축적(build)	• 관계·정신·정서 문제의 회복(repair)
무엇을?	• 예방적·교육적 개입	• 심리치료적 개입
언제?	• 문제 ‘이전’ 또는 ‘초기’ 개입	• 문제 발생 ‘이후’ 개입
누구를?	• 인식 요구(felt needs) 기반	• 인식 요구, 귀속 요구 기반
어떻게?	• 가족교육 전문가	• 가족상담, 가족치료 전문가

| 가족교육의 성격: 근거



- 근거기반 프로그램 (Evidence-Based Program: EBP)
 - 이론과 연구결과 기반
 - 전문가에 의한 교육
- 교육 효과에 대한 근거 필요
 - 효과적인 교육 ≠ 만족스러운 교육
 - 효과적인 교육 = 교육목표 달성 = 실생활 변화

| 해외 정부 주도 가족교육 운영 방식



Funded by
UK Government

- 중앙·연방 정부
 - 근거기반 프로그램 BD·목록 제공
 - 효과(effectiveness) 평가 시스템 운영
- 지방 정부 및 지역 센터
 - 근거기반 프로그램 BD·목록에서 선택하여 운영
 - 대체로 대표적인 몇 가지 EBP 활용



해외 근거기반 프로그램 DB

미국 DB

GenerationPMTO – Group

Well-supported

영국 DB

Incredible Years Preschool

Incredible Years Preschool is a parenting intervention for parents with concerns about the behaviour of a child between 2 and 9 years old. It is delivered by two IY certified facilitators to groups of up to 12 families for 18 to 20 weekly sessions. During these sessions, parents learn strategies for interacting positively with their child and discouraging challenging child behaviour.

READ MORE

Evidence rating: ●●●●● ?

Cost rating: ●●●●● ?

Child outcomes:

- Enhancing school achievement & employment
- Improved literacy
- Preventing crime, violence and antisocial behaviour

Subdomains with favorable impacts

Child well-being: Behavioral and emotional functioning, Child well-being: Social functioning, Child well-being: Delinquent behavior, Adult well-being: Positive parenting practices, Adult well-being: Parent/caregiver mental or emotional health, Adult well-being: Economic and housing stability

All Impacts:

Favorable: 23
No Effects: 88
Unfavorable: 0

호주 DB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AIFS

Home > Evidence and Evaluation Support >

Communities for Children Facilitating Partners evidence-based program profiles

Triple P Positive Parenting Program

해외 근거기반 프로그램 DB: 등급 제공

- 미국
 - [Title IV-E Prevention Services Clearinghouse](#) (보건복지부 아동가족실 산하)
 - [Blueprints for Healthy Youth Development](#)
 - [Results First Clearinghouse Database](#)
- 영국
 - [Foundations – The What Works Centre for Children & Families](#) (정부 출연 기관)
- 호주
 - [Communities for Children Facilitating Partners evidence-based program profiles |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사회서비스부 출연 연구기관)

실생활에서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 **효과적인 가족교육의 원칙** (Small et al., 2009 중 일부)
 - 명확한 목적(goals) 및 목표(objectives)가 있다
 - 이론 및 연구에 토대를 둔다
 - 시간적으로 충분하다(dosage: 총 교육시간, 교육기간)
 - 내용적으로 충분하다(intensity: 강도 및 복잡한 정도)
 - 자격을 갖춘, 훈련된 강사와 실무자가 실시한다
 - 설계된 대로 실시한다. 설계된 대로 실시했는지 평가한다(fidelity)
 -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 ➔ 제대로 해야 한다

국내 가족교육 현황 및 추진 방향

| 국내 가족교육 현황: 공적 전달체계 중심

- 성평등가족부
 - 가족센터
 - 교육부·교육청
 - 육아종합지원센터
 - 학부모지원센터
 - 초등학교(실과), 중고등학교(기술가정)
 -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보장원 (예비입양부모교육)
 - 가정법원
 - 이혼, 가정보호사건(가정폭력), 민법상 입양 등
 - 국방부
 - 종교단체: 두란노 아버지학교 등
 - NGO
 - 사회적 기업: 자람패밀리 등
 - 미디어: EBS, 유튜브 채널 등
 - 생성형 AI, 앱 등
 - 기타
- 우수사례:
서울시가족센터 서울가족학교 (종합토론)

| 국내 가족교육 특징: 탄탄한 공적 전달체계이지만...

- 중앙 관리 시스템
 - 예: 성평등가족부, 건강가정진흥원
- 무료 또는 저렴한 참가비
- 일회성·단기 vs. 중장기
 - 변화로 이어지기에 충분한가?
- 실적(인원수, 만족도) 중심 평가
- 센터 종사자의 역량, 헌신에 의존
- 정책의 영향
- 신규 프로그램 선호
- 지역 센터의 차별성 기대
 - 지역사회 특성 반영은 장점이지만...
 - 새로운 프로그램이 계속 필요한가?
 - 각개전투가 효율적인가?
 - 프로그램 기획은 실무자·강사가 잘 할 수 있는 업무인가?
 - 짧은 시간에 기획한 교육은 효과적인가?
- 대규모 효과 검증 부족
 - 효과 검증을 위한 토대가 갖추어져 있나?

정부 주도 가족교육, 제대로 하려면?

1. 우수한 커리큘럼

- 잘 만들고, 꾸준히 수정
 - 새로운 여러 개보다 똑똑한 몇 개
- 실생활 변화를 위한 충분한 교육 시간·기간(dosage)
- 확실한 매뉴얼, 똑똑한 지침
 - 민간 주도 가족교육(기관·실무자·강사 자율성 중요)과 성격이 달라

✓ 우수한 커리큘럼 개발은 단기간에 가능하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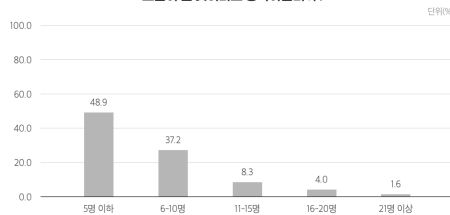


신규 효과적인 가족 교육을 위한 참가 인원: 전체

**효과적인
가족 교육 방법:
참가 인원, 회기수,
강사 특성**

· 함께 교육을 받는 인원은 몇 명일 때, 귀하의 가족생활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의 48.9%는 5명 이하의 소집단을 선택하였음. 이어 6~10명(37.2%), 11~15명(8.3%), 16~20명(4.0%)으로 소집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였음

함께 교육을 받는 인원은 몇 명일 때, 귀하의 가족생활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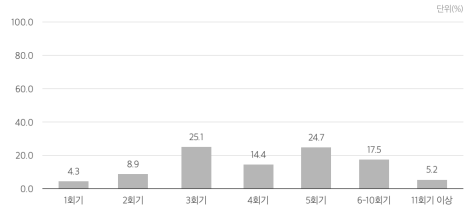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세베이 전체 응답자

효과적인 가족 교육을 위한 회기 수: 전체

· 몇 회의 교육이 귀하의 가족생활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20~64세의 서울 시민은 3회기(25.1%)와 5회기(24.7%)가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음. 이어 6~10회기(17.5%), 4회기(14.4%) 등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음

· 전반적으로 3~5회기의 교육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고, 6~10회기로 비교적 회기 수가 많은 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음

몇 회의 교육이 귀하의 가족생활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 해외 근거기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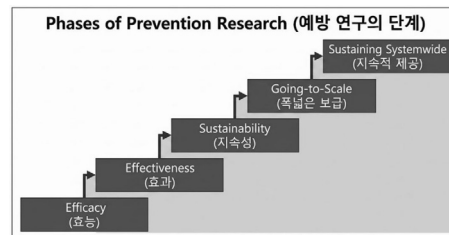
- 라이선스 비용
- 강사·지도자 양성 및 인증 비용
 - ‘공식’ 양성과정 도입
 - 매뉴얼 그대로 실시(fidelity) 매우 강조
- 문화적 적응
 - 단순 번역과는 차원이 다른 대형 프로젝트
 - 엄격한 효과 평가를 통한 근거 확보 필요

해외 프로그램 도입 vs. K-프로그램 개발

| 정부 주도 가족교육, 제대로 하려면?

2. 확실한 품질보증 체계

- 스마트한 데이터 입력·관리 시스템
 - 입력은 지역에서, 분석은 중앙 전문가가
- 세심한 과정 평가
- 과학적 효과 평가
 - 적절한 효과 평가 지표 개발
 - 무엇이, 언제, 어디서, 왜 효과적인가?
 - 근거(evidence) 확보
- 피드백을 통한 고도화



Kellam & Langevin (2003)

미국 사례 Healthy Marriage & Responsible Fatherhood

- 2006년부터 현재까지 20년 간 지속
 - 집권 정당과 무관하게 지속
- 보건복지부 아동가족실 가족지원과
 - 예산: 연간 1억 5천만 달러 (2025년 기준)
- 목적
 - 가족건강성 향상, 책임감 있는 부모역할 증진
 - 가족의 경제적 안정 (빈곤정책)
- 내용
 - 부모교육, 청(소)년 관계교육, 커플교육 등

HMRP



About the Healthy Marriage and Responsible Fatherhood Programs

The *Healthy Marriage and Responsible Fatherhood (HMRP)* programs are discretionary grant programs administered by the *Office of Family Assistance (OFA)* within th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 Grant recipients support strong and stable families through activities that promote healthy marriage and relationships, responsible parenting, and economic stability. OFA also works with ACF's *Office of Planning, Research, and Evaluation* to help grants succeed and to expand understanding of the programs.

<https://acf.gov/ofa/programs/healthy-marriage-responsible-fatherhood>

<https://acf.gov/opre/topic/strengthening-families-healthy-marriage-responsible-fatherhood>

미국 사례 Healthy Marriage & Responsible Fatherhood

HMRP

nFORM
Information, Family Outcomes,
Reporting, and Management

nFORM and CQI Resour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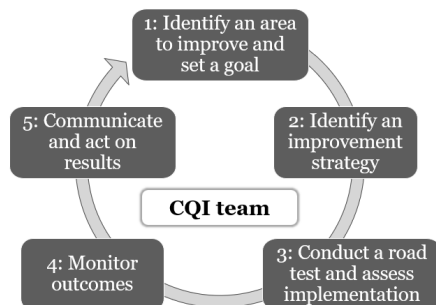
This page includes information and tools to support HMRP grant recipients in using nFORM and conducting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CQI). If you have any questions after reviewing these resources, you may request technical assistance by emailing nFORMCQITA@mathematica-mpr.com.

Please contact your grant organization's nFORM site administrator(s) for help with log in issues including resetting passwords and reactivating accounts. Site administrators should leave a voicemail for Mathematica at 844-619-6841 if they are also unable to log into nFORM.

Additional resources will be added on a regular basis. Check back for updates!

<https://www.hmrpgrantresources.info/nFORM-CQI-resources>

nFORM 기반 지속적 품질향상 시스템



| 정부 주도 가족교육, 제대로 하려면?

3. 우수한 강사·실무자

- 전문성을 갖춘 실무자·강사 선발
- 확실한 (재)교육·훈련
 - 개인·센터의 역량에 좌우되지 않도록
 - [참고] 국내 민간자격 급종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하 직능원) 등록 민간자격 (2026.2. 기준)
 - '부모교육' 포함 270건
 - '가족생활교육사' 1건 (한국가족관계학회, 전문가-1급-2급 체제)
 - '가족생활교육전문가' 15건
 - '가족코칭' 포함 자격 12건
 - '가족생활프로그램지도사' 5건
 - '가족교육전문가' 1건, '가족교육사' 1건, '부부교육지도사' 1건 등
 - [참고] 해외 사례
 - 미국: CFLE (Certified Family Life Educator; 전문학술단체)
 - 대만: 家庭教育專業人員資格(가족교육전문가 자격; 대만교육부)

부모와의 긍정적인 경험, 부모로서의 긍정적 경험,
가족의 긍정적 분위기 경험 등
가족체계 전체에 관심을 두는 저출생 대응 정책 필요

저출생 대응 정책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가족교육이
저출생 현상 완화의 해법이 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가족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정책과 현장의 균형

이가람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전략과장

우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하는 가정의 달 5월에 「가족관계교육 활성화 포럼」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가족교육의 중요성을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가족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공동체이자 가장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족의 형태와 관계 역시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결혼지옥’, ‘이혼숙려캠프’, ‘금쪽같은 내새끼’와 같이 가족 간 갈등을 다루는 콘텐츠가 주목받고,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의 긍정적인 모습보다 갈등과 어려움을 더 부각시키며, 부모가 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가족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된 두 건의 주제발표는 이러한 변화와 우려 속에서 가족교육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가족소통교육 활성화를 위한 가족교육 현황 및 인식조사」에서는 가족교육 참여 동기와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교육 활성화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가족교육’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내용으로 ‘가족 간 대화 및 소통방법 교육’(55.5%)이 꼽혔고, 가장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교육 분야 역시 ‘가족 관계 및 소통 교육’(35.6%)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관계’와 ‘소통’이 가족교육의 핵심 키워드라는 점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가족교육 참여 경험은 응답자의 88.9%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62.9%)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가족교육의 인지도와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지난 2016년 여성가족부에서는 ‘부모교육 주간’을 운영하며 포럼, 토크콘서트, 캠페인 등을 활발히 진행한

바 있습니다. 가족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례처럼 ‘왜 필요한지’, ‘언제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녀 양육 부담과 부모교육 요구도를 살펴보면, ‘모든 부모가 자녀 양육 전 또는 양육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모교육을 받도록 국가가 권장해야 한다’는 항목이 10점 만점 중 7.9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모교육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는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고, 자발적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조사에서는 1인 가구, 다문화가족, 딩크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교육 요구와 인식도 함께 반영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발표인 「가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현황 및 추진방향」에서는 가족교육의 정의와 목적 속에 해법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교육의 목적은 다양한 생애주기 가족구성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여 개인과 가족의 긍정적 발달을 촉진하고, 가족이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 주도의 가족교육은 근거기반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와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행동 변화와 효과를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기간, 적절한 교육 강도, 전문성을 갖춘 강사, 체계적인 평가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는 정부 산하 기관과 NGO 등을 중심으로 공적 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단기 일회성 교육과 실적 중심 평가, 교육 종사자의 헌신에 의존하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가족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커리큘럼, 신뢰할 수 있는 평가체계,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정책 설계와 제도적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과 지역사회 및 민간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을 유기적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표준화된 교육 커리큘럼과 국가 공인 가족교육 자격체계를 마련해 전문성과 교육 품질을 높이고, 민간은 지역 특성과 가족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와 현장 중심 교육 실천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의 방향성과 현장의 실행력이 함께 갖춰질 때 가족교육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논의를 종합해보면 국민의 가족교육 필요성 인식은 높지만 실제 참여와 접근성은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며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용어의 통일화입니다.

현재 가족교육, 부모교육 등 유사한 개념이 혼용되고 있는 만큼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반영하는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영국의 Family Hubs처럼 가족교육을 하나의 통합 브랜드로 구축한다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부처별 공공기관과 단체, 교육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야간·주말·온라인 교육 확대, 전문인력 연계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파더링 교육(아버지교육), 인구교육, (일·가정양립 실천교육)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이 가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협회 또한 가족교육이 국민 삶 속에 더욱 가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교육 활성화 방안: 범부처 협력 기반 통합체계구축·운영

김윤아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본부장

오늘날 가족은 급변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가족 내 갈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개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교육현황 및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대다수(8.58점/10점)는 행복한 가정생활이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 동의하며, 국가가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8.28점)에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참여율은 11.1%라는 저조한 수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가족교육이 “하면 좋은 것”이라는 당위적 인식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을 뿐,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본 토론에서는 주제발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가족교육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현황과 과제:

가족교육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정보의 부재’와 ‘환경적 제약’입니다.

- 정보 접근성의 한계: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중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62.9%로 압도적입니다. 이는 현재의 홍보 체계가 국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시간적 제약과 일·가정 양립 문제: 교육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로 “시간이 없어서(28.2%)”를 꼽았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에서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이 경제적 부담(56.6%) 외에도 시간 부족 및 일·가정 양립(18.3%)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 공공 주도의 신뢰도와 한계: 국민은 공공기관(74.3%)을 가장 적합한 교육 운영 주체로 신뢰하고 있으나, 실제 공공 전달체계는 분절되고 흩어져 있어, 출산 이후 양육단계 중심으로 청년, 신혼기의 관계 형성 및

갈등조정, 부모 역할 등에 대한 사전적 교육 및 경험 기회가 부족합니다.

※ (성평등부) 가족센터(244개소) 생애주기별(결혼준비, 임신, 출산 등) 부모교육 실시

※ (복지부) 보건소에서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일환, 좋은 부모되기 교육 실시

※ (교육부) 영유아 ~ 성인 대상 초, 중학교, 산하기관, 대학에서 부모교육 실시

□ 효과적인 가족교육을 위한 방향:

- 관계 및 소통 중심의 콘텐츠 강화: 인식조사 결과, 가장 강화해야 할 분야로 “가족 관계 및 소통 교육(76.1%)”이 꼽혔습니다. 이는 가족교육이 단순한 정보전달을 넘어 실질적인 관계 회복과 소통기술(Skill) 습득 및 정서지원의 장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존의 교육이 문제 해결이나 보완에 집중했다면, 향후 교육은 가족이 가진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수요자 중심 콘텐츠의 양적 확대 및 질 관리 추진: 효과적인 가족교육을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이론적 토대, 그리고 충분한 교육 시간(Dosage) 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해외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는 ‘문화적 적응’ 과정과 효과 검증 및 평가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정책적 실행 방향:

가족교육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전환이 요구됩니다.

- 가족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교육 참여 의무화” 또는 “유연근무제 보장”과 같은 실질적인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또한, 거주지 근처 거점 센터나 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 전달체계의 고도화와 연계: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학교 등 흩어져 있는 기관 간의 범부처 협력 기반 통합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범부처 통합 가족 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각 부처의 온·오프라인 교육 현황을 제공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 확대: 부모 교육에만 치중된 현재의 구조를 청년기, 결혼준비, 신혼기, 임신·출산기,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 등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소통 교육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 노력 및 홍보 확대: 간담회, 포럼 등을 통한 인식변화 및 공공기관(성평등부, 교육부, 문체부 등) 등과의 협업 및 홍보 노력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 결론:

가족교육은 단순히 개인의 가정을 돕는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지속가능한 투자입니다. 인식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국민의 요구(필요성 인식 8점 이상)에 이제 정부가

답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향후, 가족교육 정책은 ‘생애주기별 참여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가족 친화적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연계 방안 발굴로 교육 참여 제고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또한, 가족 중심 콘텐츠의 양적 확대, 질적 관리 체계 마련 및 범정부 차원의 협업 등 사회적 인식 변화 노력을 해나간다면, 대한민국 가족의 건강함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관계교육은 ‘부모가 된 이후’가 아니라 ‘관계를 배우는 전 과정’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권선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센터장

가족관계교육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하고, 가족관계교육의 활성화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성평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가족관계교육, 특히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공론화의 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습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보호자이자 교육당사자로서 권리와 책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생·교사·학부모가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교육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부모 등 보호자의 역량 강화와 학교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보다 분명해졌습니다. 특히 교육기본법 제17조의4는 보호자가 자녀 또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였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전국·지역 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가족관계교육이 선택적 프로그램을 넘어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학교 협력을 뒷받침하는 공공교육의 영역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논의되는 가족관계교육은 단지 부부나 부모에게 필요한 별도의 교육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가정의 소통, 학교와의 협력,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함께 다루는 관계역량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교육은 특정 시기의 일회성 교육이나 지원금 연계 수단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청년기, 예비부모기, 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 초기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 형태의 교육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1. 가족관계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

오청미 부장님의 발표는 가족교육에 대한 필요상과 실제 참여 경험 사이의 간극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가족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인식은 높지만, 실제 참여 경험은 낮고,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는 교육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응답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가족교육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기보다,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교육을 찾기 어렵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부부·부모 대상 교육을 단편적 행사로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애주기별 관계 형성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현장 경험에서도 학부모들은 자녀 발달, 양육, 소통, 학교생활, 진로, 정서·심리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교육 활성화의 첫 번째 과제는 교육을 더 많이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자신의 생애주기와 가족 상황에 맞는 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재림 교수님의 발표는 가족관계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가족교육은 문제가 발생한 뒤 회복하는 상담이나 치료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이전 또는 초기 단계에서 관계역량을 키우는 예방적 교육이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질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뿐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사회적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족관계교육은 사적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함께 지원해야 할 중요한 교육 과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관계교육은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교육이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말로 풀 것인지, 자녀의 발달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부부가 양육과 돌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경계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에 대한 생활 밀착형 관계역량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두 발표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청미 부장님의 발표가 가족교육의 필요성과 접근성 부족이라는 현실을 보여주었다면, 이재림 교수님의 발표는 가족교육이 예방적·교육적·강점기반 접근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두 지점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즉, 수요가 확인된 가족관계교육을 생애주기별로 체계화하고, 누구나 쉽게 찾고 참여할 수 있는 전달체계 안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2. 가족관계교육 확산을 위한 학부모지원 기반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이미 가족관계교육을 확산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0년 운영이 지정된 이후 학부모On누리 구축·운영, 시·도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학부모 참여 지원 교사자문단 등을 통해 전국 단위 학부모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현재 지역학부모지원센터는 7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학부모On누리에는 2025년 기준 138개 온라인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러한 학부모지원체계에 법적 안정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신설된 제18조의7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8조의8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토론 : 가족관계교육은 '부모가 된 이후'가 아니라 '관계를 배우는 전 과정'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로 보호자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보호자 관련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지원, 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의 상호 협력 및 운영 지원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행규칙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학부모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실제 학교와 지역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국정과제인 102.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과 연계하여, 전국 약 12,000개의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 실태를 전수 조사·분석하는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부모회의 운영 현황과 학교참여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학부모회 지원과 가정-학교 협력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2026년 학부모 지원 사업의 비전 역시 '가정과 학교의 행복한 동행, 건강하게 성장하는 학생'이며, 목표는 '교육주체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한 최선의 학생교육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에는 학부모 자녀 성장 지원, 학부모 지원 기반 강화, 학부모정책 소통·환류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특히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교육부와 함께 학부모 5대 역량군, 즉 자기돌봄 역량군, 부모역할기본 역량군, 자녀교육 역량군, 학교협력 역량군, 자녀자립지원 역량군을 기반으로 학부모교육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영아기부터 성인 초기까지 자녀의 성장단계별로 학부모가 알아야 할 기본 정보와 역할을 안내하는 「자녀 발달단계별 학부모 가이드북」, 일명 '학부모는 처음이라'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북에는 건강한 부모 되기, 자녀 특성 이해하기, 자녀 지도방법, 학교 교육과정 이해하기 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자녀 관계 형성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이드북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 전문강사 양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약 200명의 학부모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였고, 이 강사들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발달단계별 학부모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에서 개발한 콘텐츠가 지역과 학교 현장의 실제 교육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 구조입니다. 실제로 「2025 학부모 지원 사업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학부모 지원 사업 전체 참여인원은 약 76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하였고, 학부모On누리 온라인교육 수강인원도 2025년 약 16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부모 지원 사업이 이미 전국 단위에서 상당한 접근성과 확산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반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교육은 중앙에서 제공하는 표준 콘텐츠만으로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지역마다 가족구조와 학교문화가 다르고, 학부모의 요구와 자녀의 발달단계도 다양합니다. 이주배경가정, 맞벌이 가정,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가정, 조부모가 양육에 참여하는 가정 등 가족의 형태와 상황 역시 매우 다층적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교육은 중앙의 공통 콘텐츠와 함께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현장형 프로그램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지역 학부모지원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2025 학부모 지원 사업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성장지원 활동 참여인원은 2023년 약 25만 명, 2024년 약 40만 명, 2025년 약 58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학부모교육 대면·비대면 참여가 약 31만 명, 찾아가는 교육 참여가 약 24만 명, 학부모-자녀 함께활동과 학부모 학습공동체 참여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지역 학부모지원센터가 자녀 발달과 양육, 부모-자녀 소통, 학부모 간 학습과 교류 등 가족관계교육과 맞닿은

프로그램을 이미 상당한 규모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6년 학부모 지원 사업 추진 계획에서도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부모회 건설팅, 학부모 간 정보공유, 연수, 상담, 지역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이주배경가정, 특수학생 학부모, 맞벌이 가정 등 집중지원이 필요한 학부모를 위한 교육과 상담이 지역 특색 프로그램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식사문화 교육은 가족관계교육의 좋은 현장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녀의 인성 함양과 가족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요리활동과 식사예절교육에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입니다. 관계는 강의만으로 바뀌기 어렵습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먹고, 함께 대화하는 경험 속에서 관계는 회복되고 성장합니다.

따라서 향후 가족관계교육은 온라인 강좌뿐만 아니라, 체험형 프로그램, 상담, 학부모 학습공동체, 학교참여 활동, 가족센터 프로그램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발전해야 합니다. 중앙은 기본 방향과 검증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은 가족의 실제 삶과 요구에 맞게 이를 적용·확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될 때 가족관계교육은 정책 문서 속 교육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살아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3. 참여 촉진형 연계와 성과관리

이번 논의의 출발점 중 하나는 청년층이 부부 간, 부모·양육자와 아동 간 바람직한 관계와 역할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 이수 수준에 따라 각종 지원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향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신중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교육은 누군가의 부족함을 확인하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 이수가 지원을 받기 위한 형식적 요건으로만 작동하면, 교육의 본질인 관계 변화와 성찰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연계가 필요하다면 별칭·조건부 방식보다는 참여 촉진형 인센티브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이미 학부모On누리에서 교육 이수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해 왔습니다. 마음바우처 신청, 국립중앙과학관 무료 입장, 국립생태원 입장 할인 등과 학부모 콘텐츠를 연계하여 학부모 교육 콘텐츠 이수와 참여를 촉진한 경험이 있으며, 2026년에도 민관 협력을 통해 다양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제공하고, 이수자 대상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가족관계교육과 복지·양육지원 제도를 연계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족관계교육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 체계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몇 명이 들었는지, 만족도가 얼마나 높았는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모-자녀 대화가 달라졌는지, 양육효능감이 높아졌는지, 부부 간 역할분담 인식이 개선되었는지, 학교와의 소통 태도가 변화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2026년 학부모 교육 지원 강화 사업에서도 학부모정책 환류체계 구축, 학부모 지원 교사자문단 운영,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운영, 연차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정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학부모 참여 지원 교사자문단을 약 70명 규모로 확대 운영하고,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은 약 6,000명 내외로 전국 단위로 모집·운영하여 정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류체계는 향후 가족관계교육의 효과를 점검하고, 현장에 맞게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관계교육도 단순 참여 인원이나 만족도만이 아니라, 참여 경로, 교육 유형, 대상별 수요, 부모-자녀 대화 변화, 양육효능감, 학교와의 협력 태도 등 실제 관계 변화까지 함께 살펴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연차보고서가 전국 및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추진실적과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만큼, 가족관계교육 역시 데이터 기반으로 설계·운영·환류되는 정책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4. 마무리 : 관계의 토대를 세우는 가족관계교육

가족관계교육은 저출생 대응정책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지만, 그 의미는 훨씬 넓습니다. 좋은 관계를 경험한 청년은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존중받으며 자란 아이는 타인을 존중하는 시민으로 성장합니다. 양육의 부담을 함께 나누는 부부는 부모됨을 고립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이 신뢰를 회복할 때, 학생은 더 안정된 환경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이러한 방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부모 등 보호자의 역량 강화와 학교 협력은 이제 개별 가정의 노력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해야 할 교육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 지역학부모지원센터, 가족센터 등과 협력하여 가족관계교육이 국민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가족관계교육은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통제하는 교육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가정이지만, 그 책임은 가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정부와 공공기관이 함께 관계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포럼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관계교육 확산의 필요성과 실천 과제

안재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사업본부장

1. 가족교육의 재조명

- (가족교육의 목적) 가족이 건강하게 기능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
 -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건강한 대인관계 기술 및 지식 등
- (가족관계교육의 요구 환경)
 - (기존) 가족형태, 가족구성원 관계 초점 교육 운영(갈등관리, 관계회복 등)
 - (변화) 저출생·고령화 상황 및 연령·성별·가족형태 등 복합적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접근 필요

“부모와의 긍정적인 경험, 부모로서의 긍정적 경험, 가족의 긍정적 분위기 경험 등 가족체계 전체에 관심을 두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 필요”

2. 가족센터를 통한 가족관계교육 운영

- (가족관계교육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1.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건강가정교육)

(제1~3항)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2.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제7항)

-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

- (국정과제87) 아동수당(현재: 8세 미만) 지급대상을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13세 미만까지 지급, 부모교육과 연계 강화 및 인식개선 추진

· (체계로서의 가족(family as a system)에 대한 이해)

- 가족구성원간 상호작용,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와 연계

< System 어원 >

System은 1610년대에 ‘우주, 전체 창조물’이라는 뜻으로 쓰이기 시작, 이후 ‘원리·사실·아이디어의 집합’(1630년대), ‘유기체의 생명 과정의 총합’(1680년대) 등으로 의미가 확장. 또한 ‘관련 프로그램들의 집단’이라는 컴퓨터 의미는 1963년부터 기록

[어원적 의미]

핵심 이미지: 여러 부분이 ‘함께(syn-)’ ‘세워져/배치되어(histanai 계열)’ 하나의 ‘조직된 전체’를 이룸
의미 확장: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연결과 질서 속에서 기능하는 ‘체계’라는 뉘앙스가 강조

출처: www.etymonline.com(온라인 어원 영어사전)

· (교육적, 예방적, 강점기반 접근) 가족이 수행하는 긍정적 역할 학습 및 훈련

- 전국 244개 가족센터별로 지역사회 내 대상·수요 등을 반영하여 운영방식 및 내용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하고 있음

* 대면 또는 비대면 / 1~4회기의 단회성, 센터 기본사업(예산)으로 추진

< 가족센터 가족(부모)교육 운영 현황 >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참여자 수(연인원)	137,680명	140,767명	176,800명

※ ‘25년 교육실적

(단위 : 명)

구 분	실적	구분	실적
합계	176,800		
결혼준비교육	8,000	이혼위기가족교육	80
다문화가족교육	8,690	임신·출산부부교육	6,534
북한이탈가족교육	-	자녀학령기부모교육	48,049
아버지역할지원	66,917	조손가족교육	4,908
영유아기부모교육	30,629	한부모가족교육	1,364
위기청소년가족교육	543	혼례가치교육	1,086

3. 가족관계교육 활성화 계획

- (가족관계교육 활성화 추진계획 마련 및 이행)
 - 효과적인 가족교육의 원칙 반영
 - 정부 주도 가족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내용 검토 및 반영
 - 해외 근거기반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반영

□ 26년 추진 내용

1) 가족교육활성화 로드맵 개발

- ① 문헌분석: 관련 법령, 부처별 정책, 해외 사례 분석 등
- ② 콘텐츠 표준화 및 강사관리 체계 마련: 생애주기별 표준 커리큘럼, 강사관리체계, 효과성 평가지표 마련 등
- ③ 대국민 브랜드 전략 수립: ‘가족교육주간(안)’ 브랜드 네이밍 및 슬로건 개발,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전략 수립, 전국 가족센터 교육 기능 강화 등
- ④ 정책 개선안 도출: 국가 책임 강화, 타부처(타법) 연계를 통한 범부처 협력 모형 개발
- ⑤ 연차별 이행계획 마련: ‘가족교육 활성화 5개년 계획(가칭)’에 따른 연차별 로드맵 및 이행계획 수립
 - 인력 및 예산 등 자원 투입 계획 수립(부처-한가원-가족센터 전달체계 역할 명시)
 - 부처 및 한가원 내 전담팀 신설 등

2) 가족센터 홈페이지 내 가족교육 메뉴 신설

- ① 가족센터 홈페이지(familynet.or.kr)에서 가족센터별 교육 일정 확인
- ② 교육 신청
 - 온라인 신청: 가족센터 홈페이지(familynet.or.kr)에서 회원 가입 후 가족관계 교육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가족센터 방문 신청(문의: 가족센터 대표전화 1577-9337)
- ③ 교육 운영
 - 대면(원격)교육 운영

3) 가족센터 ‘가족교육주간’ 운영(하반기 시행)

- 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가족센터 홈페이지 내 가족센터별 가족교육 계획 공지
 - 가족교육 콘텐츠 보강 및 강사 관리('27년~)
- ② 가족센터
 - 가족센터별 ‘가족교육주간’(매월 3주) 운영('26.7.~)
 - 올 하반기에는 타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가족교육 수요 증가에 대비해 가족교육 주간 운영 협조
 - 수요자(맞벌이, 아버지 등) 맞춤형 가족교육 운영
 - ※ 주간 가족교육의 참여가 어려운 맞벌이, 아버지 등 대상으로 주말, 야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협조

- 찾아가는 가족교육 운영 활성화

※ 지역 내 민간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 등), 각급 학교 등에 강사 파견

4) 정부24 내 정보 제공

① 범 부처 ‘가족소통교육’종합 안내

- 범 부처 콘텐츠 활용을 위한 ‘가족관계교육’안내자료 메뉴 구성안 마련

※ 가족관계(성평등가족부), 임신·출산(복지부), 양육·학업(교육부) 등 다양한 교육영역을 통합하여 가족관계교육 정보 제공

□ 27년 추진 내용(안)

1) 온라인 교육플랫폼 운영

① 가족관계교육 전담 온라인 플랫폼 구축

② 생애주기별 가족관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예비부부, 임신·출산기, 영유아기 부모 대상 콘텐츠 개발
- 온라인 교육 영상, 카드뉴스 등 대국민용 콘텐츠 제작

2) 전국 가족센터 온·오프라인 가족관계교육 운영 확대

-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 맞벌이, 아버지 등 대상 야간, 주말 교육 확대
- 찾아가는 가족교육 운영

3) 부부·가족회복 캠프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 가족관계 회복 및 소통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 가족센터 시범사업 운영

토론 : 가족교육 활성화를 위한 가족교육 포럼

서울가족학교 사업 성과와 발전 방향

홍우정 (서울시가족센터장)

들어가며 : 두 발표를 잇는 질문

주제발표 1

가족교육 필요성 인식은 높으나
실제 참여 경험은 11.1%에 불과

미참여 이유 1위: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 62.9%

주제발표 2

정부 주도 가족교육, 제대로 하려면:

- ① 우수한 커리큘럼
- ② 확실한 품질보증 체계
- ③ 우수한 강사·실무자

핵심 질문

"가족교육의 필요성을 아는 국민이 실제로 참여하게 하려면,
어떤 교육을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가?"



서울가족학교
SEOUL FAMILY SCHOOL

서울가족학교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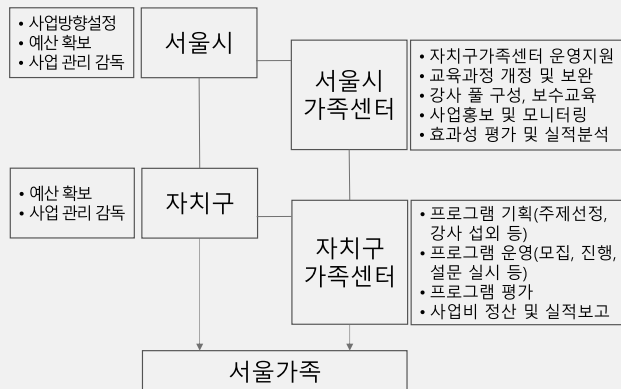
❖ 추진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건강가정 교육)
-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조례 제 11조

❖ 개요

- ✓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브랜드
- ✓ 2015년부터 시작, 12주년
- ✓ 서울 생활권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 ✓ 생애주기에 따른 7개 교실 운영
- ✓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센터에서 3월~11월 동안 운영
- ✓ 전문강사진 64명

❖ 사업 추진체계



3

서울가족학교 교실

교실명	참여 단위	참여 대상	교육 목적
커플미래준비 교실	커플	교제커플	자기/상대 이해, 의사소통 방법 학습을 통해 건강한 연인관계 형성 및 관계 자신감과 안정성 강화
예비부부교실	커플	결혼을 앞두거나 준비중인 커플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증진, 의사소통방법 과 갈등대처 방법 습득을 통해 현실적이고 건강한 결혼생활 설계
신혼부부교실	커플	신혼부부	신혼기의 기초를 확립하여 자신과 배우자, 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민주적이고 평등한 부부관계 형성
아동기부모교실	개인	아동기(손)자녀를 둔 양육자	아동기 발달 이해와 양육에 필요한 정보 및 훈육 방법에 대한 학습으로 자녀 및 부모 성장 도모
청소년기부모교실	개인	청소년기(손)자녀를 둔 양육자	청소년기 발달 이해 및 사춘기 자녀와의 소통, 진로 탐색 방법에 대한 학습으로 자녀 및 부모 성장 도모
아버지교실	개인	남성 양육자	남성 양육자의 육아 참여 증진 및 육아 역량 강화로 민주적 가족 관계 형성하고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패밀리셰프	가족	미성년 자녀를 둔 가족	요리를 매개로 가족 의사소통 및 관계 증진

4

2025년 서울가족학교 운영 실적

29,474명 연인원 목표 대비 135% 달성		14,904명 실인원 6개 교실 534건 운영		4.80점 평균 만족도 5점 만점 (전년 유지)	
교실명	건 수	회기 수	연인원	실인원	만족도
예비부부교실	50건	198회기	5,025명	1,370명	4.74점
신혼부부교실	15건	55회기	994명	310명	4.71점
아동기부모교실	94건	205회기	4,488명	2,415명	4.83점
청소년기부모교실	65건	160회기	3,224명	1,449명	4.78점
아버지교실	188건	371회기	8,220명	5,433명	4.84점
패밀리세프	122건	237회기	7,523명	3,927명	4.87점
총계 / 평균	534건	1,226회기	29,474명	14,904명	4.80점

5

우수한 커리큘럼



6

사업운영 및 성과관리_효과성 검증 결과

쌍채 t-검증, $p < .001$ 통계적 유의

▶ 예비부부교실 (N=1,198) / 신혼부부교실 (N=252)

효과성 지표	사전	사후	증감	증감율
[예비] 지식기술 차원 결혼생활준비도	3.61	4.15	+0.55	▲15.0%
[예비] 행동 차원 결혼생활준비도	3.02	3.83	+0.81	▲26.8%
[신혼] 커플관계만족도	3.94	4.25	+0.32	▲7.9%

▶ 아동기부모교실 (N=1,562) / 청소년기부모교실 (N=969)

효과성 지표	사전	사후	증감	증감률
[아동기] 양육스트레스	2.82	2.41	-0.41	▼14.5%
[아동기] 양육효능감	3.41	3.76	+0.35	▲10.3%
[청소년기] 양육스트레스	2.86	2.53	-0.33	▼11.5%
[청소년기] 양육효능감	3.31	3.70	+0.38	▲11.8%

핵심 성과

4개

교실 모두 검증

 $p < .001$

통계적 유의

↑ 26.8%

최대 향상폭

↓ 14.5%

스트레스 감소

7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 강사 역량

사업 운영 및 성과 관리

 25개 자치구 반기별 실무자 간담회현장 모니터링

 핵심 차시 PPT워크북 표준 배포 → 상향평준화

 2022~2025년 매년 우수운영사례 발표 (벤치마킹)

 2025 학술대회 포스터 논문 게재 → 근거(EBP) 축적 시작

개인-센터 역량에 좌우되지 않는 표준화 체계 구축 완료

교실별 강사풀 현황 (2025년 기준)

교실명	강사풀	차시 수
예비부부신혼부부교실	12명	8 / 9차시
아동기·청소년기부모교실	27명	15 / 13차시
아버지교실	16명	10차시
패밀리셰프	9명	3차시
총계	64명	58개 차시

강사 만족도 (5점 만점)

예비부부교실 4.80 | 신혼부부교실 4.75 | 아동기부모 4.85
 청소년기부모 4.81 | 아버지교실 4.88 | 패밀리셰프 4.86

8

참여 접근성 강화

주제발표 1과의 연결

△ 미참여 이유 1위: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 62.9%

50.4%

아동기부모교실
기관 연계 참여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생활 접점 진입 경로

75.8%

아버지교실
기관 연계 참여

어린이집 연계 85.5%
직장·육아 환경 진입

29,424명

2025년 참여인원
(+4년 연속 증가)

2022년 27,004명 →
4년간 꾸준한 증가

61%

2025 참여후기
가족학교 시민 수상

실제 변화 사례 발굴
콘텐츠 확산

구조적 해법: 프로그램 홍보가 아닌 기관 연계를 통한 자연스러운 진입 경로 구축
— 예비부부교실 참여자 92%가 가족센터 첫 방문자

9

향후 과제와 제언

01

효과 검증의 심화: 추적조사(Follow-up)로의 확대

- 현재 사전·사후 쌍체 t-검정은 의미 있는 출발점
- 그러나 주제발표 2에서 강조한 "근거기반 프로그램(EBP)"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교육 종료 이후 일정 기간의 실생활 지속 변화를 확인하는 추적조사(Follow-up Study)가 병행되어야 함
- 2025년 학술대회 논문 게재가 그 첫 발걸음인 만큼, 체계적 근거 축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음

02

교육량(Dosage) 충분성 검토

- 주제발표 2에서 강조한 "시간적으로 충분해야 한다(dosage)" 기준에서, 부모교실의 **건강 평균 2회기** 운영이 실질적 행동 변화로 이어지기에 충분 한 지 검토 필요
- 4회기로 운영되는 예비·신혼부부교실에서 행동 차원 변화율(▲26.8%)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음
- 교육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회기 수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

03

지속가능한 사업 기반 구축 : 인력과 예산의 안정적 확보

- 서울가족학교의 성과는 전문 인력과 지속적인 커리큘럼 개발이 함께할 때 유지 됨
- 우수 강사의 이탈과 인력 공백은 품질보증 체계의 가장 취약한 고리이며, 급변하는 가족 유형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수요는 기존 교실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움
- 우수 인력 확보와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안정적 예산 투자가 지금의 성과를 지속시키는 핵심 조건

10

서울가족학교는 '만족도'가 아닌 '통계적 효과'로 증명하는
정부 주도 가족교육의 실천 모델!!

☒ **우수한 커리큘럼**

5년 연속 개정
58개 차시 매뉴얼화

☒ **사업운영 및 성과 관리**

사전·사후 t-검증
25개 자치구 표준 관리

☒ **강사·실무자**

64명 강사풀
전 교실 만족도 4.7점+

감사합니다!

가족관계교육 활성화 포럼 자료집

발행일	2026년 5월 26일
발행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발행인	박구연
주소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21층
전화	(02) 3479-7600
팩스	(02) 3479-7699
홈페이지	www.kihf.or.kr
기획·편집	가족사업지원부
인쇄처	(사)한국장애인문화콘텐츠협회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발행하거나 무단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가족관계교육
활성화 포럼
자료집**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